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괴로운데…무안군-수공 '네탓 공방'

기록적 한파로 목포시·무안군·영암군 등 수돗물 공급 차질
무안군 '수공 공급량 조절 실패' 문자 발송…수공 "동파·누수가 원인"

"수자원공사의 공급량 조절 실패로 우리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무안군〉

"무안지역 단수와 장흥댐 물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장흥댐 광역상수도 서남권지사〉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대책 마련보다는 '네탓 공방'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무안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안군과 목포시, 영암군 등 전남 서부권에 수도관 동파와 누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목포지역 수돗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이 늘어나고, 영암은 100여건이 넘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무안군 삼향읍 농공단지와 해제·청계면 등 2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영암군은 "송수관 누수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절수를 호소했다. 목포시도 수도관 동파와 옥내배관 누수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자 절수 동참을 당부했다.

반면 무안군은 재난문자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공급량 실패로 일부지역 단수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의 양해를 바란다"며 원인을 수자원공사에 돌렸다.

무안군 관계자는 "장흥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9개 배수지의 저수용량이 평상시 60~70%를 유지했으나 현재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유입량이 현저히 낮아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인자로 지목된 수자원공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록적 한파로 동파와 누수로 수량과 수압이 떨어지면서 단수가 발생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무안군과 계약한 2만9000여t보다 137%인 4만900여t을 공급하고 있어 무안군이 보낸 재난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무안군이 누수 원인을 찾아내 빨리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장흥댐 덕정정수장에서 무안군 등으로 보낼 수량도 한계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이번 설 세배는 읍·면장한테 받을란다"

완도군 '모두 멈춤' 운동 전개
귀성·역귀성객 코로나 진단 검사
사랑의 콜센터 운영 안부 살피기

완도군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관문인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걱정 마라, 이번 설 세배는 면장한테 받을란다."

지난 추석 지자체 최초로 '이동 멈춤' 운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은 완도군이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이다.

완도군은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한다.

'모두 멈춤 운동'은 5대 분야, 24개 중점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5대 분야는 모두 멈춤 운동 참여 확산, 귀성·역귀성객 관리 특별 방역 추진, 군민·향우 참여 제고를 위한 복지 행정 서비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소비 촉진, 완도만의 차별화된 방역 활동 등이다.

모두 멈춤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군수 서한문 배부, 전국 향우회장 공동명의 호소문 발표, 민관 합동 캠페인,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귀성·역귀성객 관리 특별 방역을 위해 각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귀성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고향 방문을 권장하고, 역귀성객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안심 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을 인증하는 '귀성객 자율 신고제'도 운영한다. 각 마을이 주체가 되는 '마을 지킴이 방역 봉사단'을 구성해 귀성·역귀성 명단 파악 관리 및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군민·향우들의 모두 멈춤 운동 참여를 위해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 독거노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매생이 떡국 등 설 명절 음식 나눔, 온라인 성묘, 추모 공원 합동 성묘 및 차례 등을 지원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랑의 콜 센터'를 운영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향우들이 읍면에 '부모님 안부 살피기'를 신청하면 읍면장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설 선물 전달·자녀 세배 영상 시청 등을 돕는다.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군 대표 쇼핑몰인 완도군이숍과 우체국쇼핑몰 등에서 활전복과 전복 가공품 등을 할인하는 이벤트도 한다.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주고받기, 세뱃돈 주기 등 캠페인도 전개한다.

완도만의 차별화된 방역 대책으로 '저인망식 생활방역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 요양·종교 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등 1651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쓰기와 발열 체크, 출입 명부 관리 등을 점검한다. 군민과 관광객 접촉 최소화를 위해 테이블 분리를 하는 안심식당 지정·운영과 여객선터미널 출입구 발열 체크 실시, 마스크 미착용 시 승선 거부 조치, 소독 등 여객선 특별 방역도 추진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해경, 신안해역 괭생이모자반 수거

임재수 신임 서장, 예찰·수거 참여

목포해양경찰이 신안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수거에 힘을 보탰다.

목포해경은 임재수 신임 서장이 참가한 가운데 괭생이모자반 예찰과 수거작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괭생이모자반 수거를 위해 방제정 2척, 경비함정 5척, 신안 연안구조정, 민간 해안자율방제대 등을 투입 중이다. 또 드론을 이용해 모자반 분포현황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 서장은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흘러온 괭생이모자반이 임자, 자은, 암태, 비금, 도초, 지도 해안지역까지 흘러들었다"면서 "방제정 등을 동원해 모자반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해역은 최근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1200여t의 습격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김과 미역 등의 양식시설에 달라붙어 해산물의 엽체를 떨어뜨려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을 가져오고 있다. 또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안가로 흘러들어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야기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해경이 신안 전 해역으로 확산해 김과 미역 등 양식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3월까지 특별단속

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오는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 기간에는 군청 2개조 8명, 읍·면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이 곳곳에 투입된다. 상습투기지역에는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동원해 24시간 집중 감시·단속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투기에 이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영광지역은 지난해 연말까지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로 시가지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 나는 불편을 겪었다.

쓰레기 수거 대란은 생활쓰레기 소각·매립 시설인 영광환경센터가 소재한 홍농읍 성산리 마을주민들이 '소각장 용량 증설(20→40t)'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촉발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28년 된' 농관원 진도사무소 27억 들여 신청사 건립…내년 준공

진도군은 지어진 지 28년이 넘어 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가 신축,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진도사무소 청사는 시설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인 불편이 컸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토지매입비 등 예산 2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으며 올해 설계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연말 입주한다.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민원 안내실, 농산물검사 감정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신청사가 완공되면 맞춤형 농정 서비스를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관원 진도사무소는 1998년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로 통폐합돼 농정업무를 추진해 오다 2019년 2월에 해남에서 다시 독립해 진도사무소로 21년 만에 부활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 까지 법인 100억 /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 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